

새시대의 아우성

# 학부모 성교육



## 1. 내 아이 지키기

### 1) 필요

상습범으로 부터 우리 자녀 지키기  
10대 남아의 성폭행이 증가 추세이다.  
10대 때 성폭행 발생 시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 보다 더 크다.  
10대의 성폭행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첫 번째 대처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결 짓고 가해자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성폭행 상습범의 첫 번째 범행이 10대때 발생하기에 첫 사건 발생 시 갈무리를 잘 하면 상습범이 되지 않는다.  
어른들의 체면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아들)을 상습범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어 버린다.  
무엇이 잘못된지 명확히 알게 해서 다음부터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관대하게 처리해서도 안 되나 나쁜 아이로 낙인해서도 안 된다.  
총체적으로 잘 해결되어 진다면 존재와 행동을 분리해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머지는 온전히 믿어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딸 가진 부모는 내 자녀와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한다.

### 2)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성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이 험악하고 어두울수록 밝고 아름다운 성을 먼저 교육시켜야 한다.  
10대 때 성폭행 당한 후유증은 평생을 가는 것이기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20%는 잘 극복하지만 80%는 우울증에 많은 고생을 한다.  
현실적인 성교육은 예방교육과 대처 방안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평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10세 이전에 형성된다.

아버지 덕분에 나는 10세 때 남자는 좋은 사람으로 세포에 각인되어 있다.  
부부의 행복한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의 계기가 된다.  
야동을 이기는 원천적인 힘은 부모의 행복한 삶과 모습 속에 있다.  
이들을 예뻐하는 엄마의 말미에는 '그래도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네 아빠란다'  
라는 의식을 강조해야지만 건강한 아들로 양육할 수 있다.

남녀의 에너지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각방은 쓰지마라.  
(천성수 교수의 논문)

### 3) 사춘기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네덜란드는 효과적인 성교육 덕분에 첫 경험 연령이 늦어졌다.  
그리고 10대의 임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1/10 감소하였으며  
데이트 강간이 줄어들었다.  
여성 호르몬은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시대에 맞아야 하며 성교육의 핵심은 '성은 좋은 것이다'를  
가르쳤다. 그래서 한국의 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교육이 아니라 성은 남녀가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일생의 수명과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성은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정말 활기차고  
진실 되게 가르쳐 줄까가 중요 과제인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 누려야 할 오르가즘에 대하여 굉장히 재미있고 몸이 좋아지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진실을 알려주면 아동은 시시해 진다.  
쾌락의 핵심을 진실 되게 알려주면 본인이 스스로 몸을 지켜간다.

아우성 조사 결과 여학생의 경우 '성은 좋다' 라고 느낀 것은 5%, 남학생은 22% 였고,  
유독 여학생에게서 만 '성은 무섭다' 가 12% 나왔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의 답변은 '성교육'이었다.  
성교육의 핵심은 '성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

### 4) 호기심에 대한 이해

우리 자녀들의 호기심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a.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호기심을 풀어주는 원칙이 필요하다.

- 부모의 태도 : 호기심의 질문에 대해 기꺼이 임하는 태도가 중요  
같이 궁금해 하며 아는 것은 즉답해 주며 모르는 것은 같이 찾아보자는  
정보의 교류가 너무 중요하다.

자녀가 느끼기에 성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은 모든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부모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함으로써  
치유와 처치가 빨리 진행 될 수 있다.

b. 간접체험을 듣고 싶어 한다.

간접체험의 핵심은 진실 되게 하여야 한다.

남자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폭행이다.

진실 된 성교육은 자녀에게 방침(지침)을 세워준다.

내 주위의 진실 된 성교육이 자녀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호기심은 풀어주면 자녀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게 된다.

c. 직접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가능하면 직접체험을 하지 않도록 호기심과 간접체험을 많이 알려준다.

## 2. 우리아이 지키기

### 1) 위협적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예방교육은 가볍게 해 줄 필요가 있다.(당했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유아 대상으로는 예뻐하는 것과 예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예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예뻐하지 않는 것은 장난치는 것이니 "장난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다.  
 나쁜 사람은 회유와 협박으로 장난을 하고 나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예방교육도 꼭 하여야 한다.

사춘기 이후 시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안팎에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2) 당했을 때

- 신고부터 꼭 해야 한다.  
 순결관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모의 그릇된 판단 :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다 -> 우울증의 원인이다.

순결관은 처녀막 기준에서 보면 안 된다. (처녀막은 위생과 건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폭행은 순결과 무관하며 본질은 폭력이다. 단지 부위가 성기일 뿐이다.  
 당한 사람은 주위에 빨리 알리고 이야기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해서 놀이 치료와 함께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 3. 내부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남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교육을 하게 되면 99% 예방 가능하다.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유아기보다는 사춘기 때 더 많이 분비된다.  
 여성 호르몬은 관계유지, 수용적 태도, 정서적인 반면,  
 남성 호르몬은 경쟁/서열, 공격적 경향, 충동적 행동을 하게 한다.  
 호르몬의 반응을 잘 이해하여서 서로의 차이점을 알게 가르친다.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과 유스키퍼를 설치한다.

### 1) 남매

오빠와 여동생 사이 일 경우 제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매가 함께 있는 곳에서 아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할 말은 정확히 한다.  
 '오빠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남자들은 여지가 있을 때 성폭행 할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주며 사춘기 자녀는 남녀 따로 잠자리를 재운다.

### 2) 음란물

보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비되어 ①보고 싶다 ②만지고 싶다 ③비벼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잘 관리하고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럴 경우 혼자서 조용히 풀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준다.

### 3)

존재와 행동을 분리시켜서 하면 된다.

자녀를 믿어주며 음란물을 보게 되면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정확히 알려주고

행동으로 옮겨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다.

상상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행동을 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서 예방교육 효과를 높인다.

### 4) 친인척

간혹 아빠가 딸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100% 이혼하는 것이 딸을 살릴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네 속옷 안을 만지거나 보여 달라고 하면 꼭 이야기하라고 가르친다.

### 5) 자위행위

건강(면역력)면에서 보면 자위행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의 자위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자위행위를 할 때는

a)문을 잠그고 한다.

b)야동을 끄고 한다.

c)몸을 이완시켜 몸의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